

최근 국내외 패션에 나타난 느리게 살기 운동의 영향*

김 윤 희

한남대학교 의류학과 부교수

The 'Be Slow' Movement and Its Impact on the Current Fashion

Yoon-Hee Kim

Associate Profess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Hannam University
(2002. 8. 5 투고)

ABSTRACT

This paper begins with the thesis that the so-called 'Be Slow' Movement has not only affected the contemporary life style but also the current fashion trend in the West as well as in Korea. The influence of the 'Be Slow' Movement on the everyday life of Western and Korean society can be documented by recent books, news reports, and many articles from various kinds of mass media and fashion magazines since the year 2000.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Be Slow' Movement is a new cultural phenomenon and very different from that of the past century. It has emerged very recently and it could affect the life style of its followers for a long period of time. Second, the influence of 'Be Slow' Movement on everyday life can be witnessed in many behavioral choices, such as the preference of organic food and natural cooking for food and the preference of rural life and a green patch of land for housing. Some aspects of the way of rearing the children and long-term planning of one's life are also under the influence of 'Be Slow' Movement. In a way, the life style proposed by the 'Be Slow' Movement is somewhat similar to that of 'Bobos'. Third, the influence of 'Be Slow' Movement on the current fashion trend can be observed in the appreciation of time-consuming labour and increased usage of D.I.Y. clothing. The higher value of fashion goods with handcrafted part or scarce luxury item are good examples of the influence by the 'Be Slow' Movement.

One can say that the 'Be Slow' Movement is not retrogression, but a re-creation of time and space to be grateful for one's life. Thus, it is not anti-technology but a commercialism with technology in order to enhance the quality of life and to place people in the center of production and consumption. Consequently, one may say that the 'Be Slow' Movement is a appropriate and affluent way of living.

* 본 연구는 1999년도 한남대학교 교비 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Key Words : the 'Be Slow' movement(느리게 살기 운동), D.I.Y.(스스로 만들기),
handcraft(수공예), scarce luxury item(희소 명품)

I. 서론

현대 사회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대량생산, 획일성, 속도감으로 대표되는 빠른 생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빠름'이 생활 전반을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현 시대에 지난 몇 년 동안 체코의 소설가 밀란 쿤데라(Milan Kundera)의 장편소설 「느림(La Lenteur)」과, 프랑스의 철학자 피에르 상소(Pierre Sansot)의 「느리게 산다는 것의 의미(Du Bon Usage de la Lenteur)」가 오랫동안 베스트 셀러에 올랐던 적이 있었고, 이와 유사한 주제의 도서 출간이 계속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00년 서울 아트선재센터에서 '느림(Slowness of Speed)'이라는 주제의 전시가 있었고 2002년 제4회 광주비엔날레의 주제도 '멈춤(Pause)'이었다.

이는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시작된 삶의 속도전에 지쳐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느리게 살기'¹⁾가 하나의 대안으로 인식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느리게 살기 운동은 국내의 생활 전반에서 다양한 변화를 일으키면서 최근 중요한 생활 방식의 하나로 가시화되고 있다. 대안 문화로서의 느리게 살기 운동은 의미 그대로 '대안'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life style)을 조용히 그러나 비교적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패션은 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공유하는 생각이 드러나는 결과물의 하나로서, '사람들의 활동, 관심 및 의견을 포함하여 삶을 영위하는 방식', 즉 소비자의 의식, 활동, 태도 등을 포함하는 복합적인 생활의 틀을 말하는²⁾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근래 일어나고 있는 느리게 살기 운동이라는 라이프 스타일을 살펴봄으로써 현대 패션 변화의 기저에 있는 현대인의 생각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

해 라이프 스타일 변화와 패션 변화의 상관성을 입증하는 사례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느리게 살기는 최근 패션에서도 중심을 이루는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는데, 자연친화적인 상품의 개발, 웰빙(well-being) 추구, 소비자들의 사회적 책임의식에 대한 환기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제로 지난 몇 년 동안 자연적인 질감과 재활용된 재료들이 인테리어와 의복에서 보다 많이 선보이고 있고, 정원 가꾸기, 수공예, 스파(spa)와 같은 즐거움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며, 소비자들은 보다 정직한 기업의 상품을 원하고 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역으로 자동차, 의복, 화장품 등에 관련된 글로벌(global) 기업의 나아갈 바에 영향을 주고 있다. 웰빙의 개념이 사회 전반에 걸쳐 받아들여지면서 양보다는 '삶의 질'을 추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부각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의 패션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환경, 즉, 사회 문화적 변화 및 패션 트렌드(fashion trend)의 변화와 라이프 스타일로서의 느리게 살기 운동과의 상관성에 대한 고찰에서 출발하여 느리게 살기 운동이 최근 패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규명하고자 한다. 이 글의 연구 과제는 첫째, 현대의 사회 문화적 변화가 느리게 살기 운동이라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 둘째, 느리게 살기 운동으로 인한 소비자의 의식 변화는 무엇인가, 셋째, 느리게 살기 운동이 영향을 미친 패션에서의 변화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문헌 연구를 중심으로 진행하였으며, 국내외의 사회 문화적 변화와 관련된 서적과 신문, 잡지 등의 대중 매체의 내용을 주요 자료로 삼았고, 패션관련 문헌자료는 2000년 이후 국내외의 패션 잡지, 패션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서, 사진 자료는 2000년 이후 최근까지의 국내외 패션잡지,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였다.

II. 본 론

1. 느리게 살기의 개념 고찰

1) '느리게'의 사전적 의미

'느리게 살기'는 20세기 말 일부 사람들이 채택하기 시작한, 삶의 전반을 지배하는 삶의 방식의 하나로, 먼저 '느리게'의 단어 의미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분석해 보기로 한다.

야후 국어 사전³⁾에 따르면 '느리다'는 첫째, 물체가 움직이거나 사람·동물이 행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보통의 정도나 비교 대상보다 길다의 의미를 지니고, 둘째, '빠르다'의 반대말로서, (일의 진행이) 보통의 정도보다 시간적으로 더 걸리는 상태에 있다는 의미를 지니고, 셋째, (성질이) 누그러져서 야무지지 못하다는 뜻을 지닌다.

연세 한국어 사전(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 간)에서⁴⁾는 형용사로서의 '느리다'를 첫째, 빠르지 못하다, 천천히 움직이다, 둘째, 성질이 급하지 않다, 게으르다의 뜻을 지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위의 두 정의에서 볼 때 '느리다'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천천히 움직이다, 둘째, 시간이 더 걸리다이다. 첫째는 천천히 움직이는 모습의 표현, 둘째는 어떤 일을 하는데 시간이 더 걸린다는 뜻으로 부연 설명할 수 있으며, 이 분류는 느리게 살기 운동을 전반적으로 분류, 고찰하는데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것이다.

2) '느리게'의 사회 문화적 의미

자크 아탈리(Jacques Attali)는 「21세기 사전」에서 21세기의 '느림(slowness/lenteur)'을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난한 시대의 퇴보, 하이퍼 계급 안에서 자기 컨트롤의 미학⁵⁾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느림은 국어사전의 정의와 같이 부정적 의미를 지닌 '게으름'이 아니라 여유 있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사치로 정의되고 있는 것이다. 빠른 생활이 특징인 현대에서는 느리다는 것만으로도 점차 하나의 차별 가치를 지닌다.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의 생리에 비추

어 볼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달리, '느리게'는 분명한 반동의 의미를 가진다. '느리게 살아가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은 사실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현대인에 있어 이러한 시간과 공간은 개인이 의지를 가지고 새로이 창출해야 할 것이 되었으며 대중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시간을 꾸려 갈 수 있는 한 개인의 여유를 의미하게 되었다.

산업 혁명 이후 사회 구조가 농촌 중심에서 산업 중심으로 바뀌면서, 사람들은 행사적 시간 개념보다는 시계라는 기계적 장치에 의한 시계적 시간 개념에 지배되기 시작했다. 이런 변화는 시간과 사람 사이를 멀어지게 하였고, 마침내 새로운 시간 패턴을 등장시켰다.⁶⁾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24시간 사회'이다. 이것은 말 그대로 24시간 깨어 있는 사회를 지향하는 것으로, 주로 24시간 깨어 있어도 지치지 않는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제안되는 경우가 많다.⁷⁾

반면 느리게 살기는 시간을 급하게 다루지 않고, 시간의 재축에 떠밀려 가지 않겠다는 단호한 결심에서 나오는 것이며, 또한 삶의 길을 가는 동안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능력과 세상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겠다는 확고한 의지에서 비롯하는 것이다.⁸⁾ '항상 깨어 쓸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는' 24시간 사회와 '자연의 시간에 순응하는' 느리게 살기는 결과적으로는 매우 다르지만, 현대사회에서 시간의 운용을 집단이 아닌 개인의 자율에 맡긴다는 점에서는 같다고 할 수 있다. 이 가운데 느리게 살기는 사회적 시간과 차별적이고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제안하는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기 때문에 현대인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이다.

느리게 살기는 의식주의 여러 가지 면에서 변화를 보여주는 새로운 삶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느리게 살기가 삶의 각 분야에서 어떻게 진행되어 왔으며,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어떤 식으로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다음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2. 느리게 살기 운동으로 인한 식·주생활의 변화

1) 느리게 살기 운동의 사회 문화적 배경

느리게 살기 운동의 배경이 되는 사회 문화적 환경에는 우선 산업 발달 위주의 사회에서 파생된 문제라 할 수 있는, 지구 환경의 파괴, 활발해진 국제 무역으로 인하여 광우병과 같은 질병이 그 지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전세계적 위협이 되는 것 등의 환경과 느리게 살기 운동의 결과이기도 하면서 느리게 살기 운동이 있을 수 있게 한 원인이 되기도 하는 사람들, 즉, 종래의 시간 개념에 얽매이지 않고자 하는 사람들, 시간 개념에 얽매이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의 등장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주로 20세기말부터 시작된 인터넷으로 인한 새로운 직업군의 등장과 더불어 일찍이 부를 축적하거나, 9시에서 6시까지 일하는 직업군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새로운 사람들은 해외 뿐만 아니라 국내에도 이미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느리게 살기 운동의 발생, 파생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여기에서는 느리게 살기 운동의 사회 문화적 환경으로, 지구환경에 대한 위기감 고조와 새로운 글로벌리즘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① 지구 환경에 대한 위기감 고조: 1990년대 이후 엘니뇨와 라니냐 등 기상변이가 일상적 현상이 되자, 1992년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는 전세계 185개국에 참가, 지구촌 환경 문제에 대한 회의를 개최하기에 이른다. 환경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무공해 상품임을 보증하는 에콜로지 마크가 등장하는가 하면, 녹색연합 등의 환경보호단체들의 움직임이 크게 가시화되었고, 의식주의 모든 부분에서 환경친화적인 상품이 많이 선보였다.⁹⁾

20세기를 반성하는 움직임이기도 한 환경의 중요성 강조는 국내에서도 안면도 주민들의 핵폐기물 처리장 건설 반대 시위(90년)로 촉발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다음해 3월 낙동강 폐놀 오염으로 국민에게 위기감을 고조시켰다.¹⁰⁾ 국내에서는 '지역이기주의'라는 신종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환경을 오염시키는 시설의 경우 자신들의 주거지역에 절

대로 들어오지 못하게 시위를 하는 모습을 90년대 들어 흔히 볼 수 있게 되어 환경에 대한 인식이 생활 속에 깊이 들어와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활발해진 국제 무역과 새로운 글로벌리즘: 1990년대 전자 통신, 모바일 기기의 보급과 교통수단의 발달, 그리고 인터넷의 급속한 확산으로 문자 그대로 지구는 '하나의 세계'임을 실감하게 되었다.¹¹⁾ 이러한 글로벌리즘의 촉진 배경에는 WTO 체제로 보호 무역 정책이 약화되고 국제 무역이 보다 활발해지면서, 소비자의 수요도 동질화된 것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¹²⁾ 게다가 1996년의 유럽 광우병 파동의 시작으로 최근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일련의 전세계적 현상들은 이제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각종 현상들에서 물리적 거리가 지니는 의미가 점차 약해져 감을 보여주는 것이 되었다.¹³⁾ 사람들은 상품의 원산지, 특히 식재료의 원산지를 더욱 민감하게 인식하게 되었고, 국내산을 선호하게 되었다. 또한 자연에 순응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어, 의식주에서 이를 실천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2) 느리게 살기 운동의 해외 사례

① 식생활에서의 변화: 느리게 살기 운동은 1986년에 시작된 '슬로 푸드(slow food)' 운동에서 유래한다. 이 운동은 1986년 이탈리아의 카를로 페트리니(Carlo Petrini)가 로마에까지 맥도널드(McDonald)가 등장한 것에 경각심을 가지면서 시작한 것으로, 전통음식을 소멸시키는 패스트푸드의 진출에 대항하면서 식사, 미각의 즐거움, 전통음식의 보존 등을 목표로 내걸고 있다. 이렇게 시작된 슬로 푸드 운동은 최근 40개 나라에서 7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참여하는 운동으로 확산되었는데, 이들은 가족간의 식사 시간을 갖고 제철 음식과 자국에서 생산된 재료를 소비하는 데에서 이 운동의 정신을 실천하고 있다.¹⁴⁾

2000년 10월 이탈리아에서 슬로 푸드 축제와 슬로 푸드 선발 대회가 열려 세계 곳곳의 '느린 음식'을 시상한 데 이어 2001년 4월에는 미국 뉴욕에서, 2001년 10월에는 스위스 취리히에서, 11월에는 이

탈리아 로마에서 슬로 푸드 축제가 열린 바 있다.¹⁵⁾ 슬로 푸드에 대한 관심은 2002년 4월 타임(TIME)지의 기사에서 볼 때 현재 일반인에게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타임(TIME)은 “바쁜 시간을 위한 느린 요리(Slow cooking for fast times)”¹⁶⁾라는 제목 하에 지난 5년 간 시간을 들여 전통적인 방법으로 음식을 조리하는 슬로 푸드가 약 6% 증가하였고, 지난 6개월 동안 슬로 푸드 요리 책이 베스트 셀러가 되고 있다고 하면서, 전자렌지에 대한 건강한 대안으로 향아리를 소개하고 있다. 또한 최신의 부엌 가구와 부엌용품의 트렌드를 제시하는 브랜드인 불탑(bulthaup)사에서도 빵의 수분을 느리게 배출하는 테라코타(terracotta)를 가지고 사람이 직접 만든 빵 보관 도자기 그릇을 소개, 판매하고 있다.(<그림 1>)¹⁷⁾



<그림 1> 불탑사의 빵 보관 용기(www.bulthaup.com)

게다가 미국 뉴욕에서는 2001년 9.11 테러 사건이 발생한 이후 부엌에서 시간을 보내고 요리를 직접 하는 것이 새로운 트렌드가 되고 있다. 9.11 이후 사람들은 가족애, 동료애를 다시 찾길 원하게 되었으며, 이에 요리는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인식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쿡킹 클래스 역시 붐비고 있다고 한다.¹⁸⁾ 사실 스스로 요리하기를 즐기는 것은 2000년 들어 「보보스(bobos)」라는 책이 발간되면서 그 정체가 구체화되어 각광을 받고 있는 보보스들의 독특한 라이프 스타일 가운데 하나이다. 현대의 성공한 젊은 계층인 이들은 스스로 요리하기

를 좋아할 뿐만 아니라 효모로 발효시킨 술, 거르지 않는 과일 주스, 유기농 커피, 짙은 설탕, 거친 호밀빵, 유기 농산물로 만들어진 유아식 등 자연의 향이 한껏 느껴지는 건강식품에 관심이 많다. 이들은 유기농 야채와 과일을 이용한 레스토랑, 천연 재료들만 사용한 화장품들과 생활 용품들을 판매하는 상점에 가기 때문에 이 장소들이 트렌디(trendy)한 장소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나, 스내류부터 외출용 의복에 이르기까지, 에콜로지 마크를 받은 유기제품을 슈퍼마켓과 백화점 등에서 판매하고 있을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광우병 파동 이후 식생활에 더욱 까다로워진 보보스들 덕분에 유기농 전문 시장과 유기농 식료품, 비누, 샴푸 등을 판매하는 시장이 성황을 이루고 있다.

보보스들은 심신의 안정을 추구하면서 자연적인 상태, 덜 산업화된 문명과 문화로 돌아가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동양 문화에 대해 관심이 각별하며, 밀라노의 상류층 사이에선 건강식의 경우 동양식단을 모방하는 일이 흔하다. 많은 채식주의자 레스토랑이 동양권 음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동양의 밀, 현미, 쌀, 곡식류에 대한 관심이 높다.¹⁹⁾ ‘살아 있는 음식’ 레스토랑도 등장하였다. 식당 주인 소유의 유기농 채소밭에서 기른 신선한 채소를 사용하며, 요리할 때는 불의 온도를 섭씨 47.7도 이상 올리지 않는다. 이를 통해 날 것과 살아 있는 음식의 효능을 취하고자 한다.²⁰⁾

이와 같은 슬로 푸드 운동은 패스트 푸드의 폐해에 대하여 인식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더욱 확산되고 있으며, 유기농법으로 길러진 채소만을 취하는 극단적 채식주의자에서부터 전통적 조리법으로 음식을 만들려는 절충주의자까지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② 주생활에서의 변화: 1999년 이탈리아의 브라(Bra), 치안티(Chianti)의 그레베(Greve), 오르비에토(Orvieto), 포시타노(Positano) 등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되어 이탈리아 내 32개 도시가 참여하게 된 ‘슬로 시티(slow city)’ 운동이 있다. 이 운동에 참여하는 마을에서는 자동차 추방, 경음기 사용 금지, 자전거 권장, 보행자 구역 확대 등 시민들의 삶의 속도를 늦추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더 푸른 생활 공간을 만들고, 소음을 줄이고, 광장과 거리를 마을의 중심에 세우고 있다. 이들은 이런 것들을 해냄으로써 주민들의 삶이 크게 개선될 수 있다고 믿고 있다.²¹⁾ 이와 같은 운동은 전 세계로 확산되어 이태리 뿐만이 아니라 일본 교토 등의 고도에도 확산되고 있으며, 독일, 노르웨이 등에도 슬로 시티가 늘어나고 있다.

이 가운데 이탈리아의 도시 그레베는 슬로 시티의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다. 슬로 시티 정책 이후 그레베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진 것은 물론, 관광과 농업을 비롯한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이주하여 나갔던 청년들이 회귀하고 있다. 현란한 불빛 대신 천막을 친 7일장, 다국적 기업농 대신 7대째 이어온 포도밭, 1분만에 나오는 햄버거 대신 4시간 요리하는 스투와 소스, 내온사인과 알루미늄 문 대신 손으로 칠하고 나무로 만든 물건을 지켜나가고 이용하는 것들이 느린 삶을 위한 주요 행동 규칙이다. 이처럼 그레베는 자연의 리듬에 맞춘 인간다운 삶을 되찾고, 환경과 옛 도시 경관을 보존하며, 전통적 방식의 소규모 농·공·상업을 살린 도시로 변화했다. 결국 빨리 많은 것을 이루기 위해 바쁘게 사는 길을 포기하고 적게 이루더라도 전통과 문화를 지키면서 천천히, 건전하게, 생각하며 살자고 그레베가 추진한 것이 오히려 경제적으로도 더 잘 살게 되는 아이러니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²²⁾

③ 기타: 환경문제의 대두로 패션업계와 화장품업계는 그들이 “환경친화적임”을 강조하게 되었다. ‘바디샵(Body Shop)’과 같은 미용 관련 상품(화장품, 목욕 세제 등)을 생산 판매하는 브랜드는 자연적, 전통적 재료를 사용하고, “환경친화(environmentally friendly)”의 꼬리표를 붙인 상품으로 인기를 끌었으며 품목을 불문하고 환경친화적이거나 재활용이 가능한 상품만을 취급하는 상점들이 서구에 생기기 시작하였다.²³⁾

3) 느리게 살기 운동의 국내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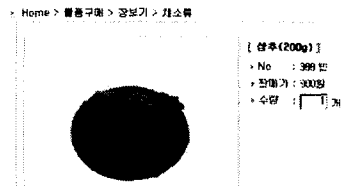
국내에서도 느리게 살기 운동과 맥락을 같이 하는 다양한 움직임이 볼 수 있으며, 이는 한편으로 자연과 전통으로 돌아감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국내에서 보여진 느리게 살기 운동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① 식생활에서의 변화: 느리게 살기 운동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 중에서 식생활에서 볼 수 있는 변화는 더 까다로운 기준으로 식재료를 선택한다는 것으로, 유기농 야채, 유전자 조작되지 않은 식품 재료, 국내산 재료의 선호에서 볼 수 있다. 사실 국내의 이런 움직임의 확산은 2002년 초에 방영된 SBS의 기획 프로그램인 “잘 먹고 잘 사는 법”의 방영으로 촉발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프로그램에서의 먹거리에 대한 기존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은 접근이 일반인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으면서 한 때 “먹을 것이 없다”는 말을 흔하게 사용하게 되었다. 1회는 식탁 위의 작은 혁명, 2회는 기적을 만드는 식사, 3회는 아이들의 위기로 구성되어 방송된 이 프로그램에서 1회의 “식단을 바꾸자”→ 2회의 “건강이 좋아진다”→ 3회의 “아이들의 건강에 더 신경쓰자”는 슬로 푸드 운동의 핵심 주제였다고 할 수 있다. 이 방송은 이후 유사한 프로그램, 관련 책들의 출판 러시를 이루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국내에서는 www.slowfoodkorea.com을 중심으로 슬로 푸드 운동을 효율제일주의로 희생된 전통적이며 자연친화적인 생활양식을 되살리자는 사회운동으로 발전시키고 있다.²⁴⁾ 이 사이트에서 선정한 한국의 슬로 푸드 관련 단체는 한국 전통음식연구소, 김치박물관, 우리밀 살리기 운동본부 등이 있고 슬로 푸드는 전통차, 전통음식, 민속주, 떡, 된장, 김치 등이다.²⁵⁾ 슬로 푸드를 취하는 라이프 스타일에서는 패스트 푸드나 정제된 음식 재료를 피하며, 직접 재배한 먹거리를 먹고, 가격이 더 높더라도 무공해임을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구입한다.(<그림 2>) 더욱 적극적인 이들은 무공해 식품을 키우는 동아리를 조직하고 자체 운영하며,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재료로 스스로 음식을 만든다. 2002년 현재 국내에서 인터넷 상의 동아리가 가장 활성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 다음(www.daum.net)에 ‘유기농’을 키워드로 치고 카페를 검색했을 때, 약 17개의 카페가 검색되며,²⁶⁾ 2002년 이후 국내에서 출간된 먹거리에 대한 책이 30여종이 넘는다.²⁷⁾

슬로 푸드는 보다 자연적이고, 전통적인 방식에 의한 음식으로 국내에서는 전통 음식에 대한 재평가, 해외에서는 동양권 음식에 대한 관심으로 발전되고 있다.



<그림 2> 유기농 재배 식재료를 판매하는 <한살림>의 인터넷 사이트 화면(www.hansalim.or.kr)

② 주생활에서의 변화: 2000년 말 통계청의 사회 지표 조사 결과 가운데 한국인의 여가 활용 형태에 관한 흥미로운 것이 있다. 여가 활용으로 TV 시청이 62.7%로 가장 많으며, 휴식, 수면 50.7%, 가사 잡일이 33.5%로 나타나서(복수응답으로 합계가 100%가 넘음)²⁸⁾ 한국인의 대부분이 여가를 집에서 쉬거나, 집에서 일을 하면서 보낸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일기 시작한 전원 주택 붐이나 주말 농장에 대한 관심의 증가는 갑갑한 도시에서 벗어나 여유롭게 삶의 질을 찾아 보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기에는 2002년부터 부분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주 5일 근무제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주 5일 근무제로 가족, 친구간 소규모 단위의 여행으로 레저 형태가 바뀌면서 별장식 전원주택 임대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펜션 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기도 하다.²⁹⁾

2002년 전원주택 박람회(HOMDEX 2002)에 인터넷으로 사전 청약했던 507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관사 드림사이트코리아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1년 이내에 전원주택으로 이주하겠다'는 응답자는 25.7%에 달했다. 이는 같은 질문에 대한 작년과 재작년 응답률에 비해 높아진 것이다. 이 설문에서 전원주택 이주 목적을 묻는 질문에 34.5%가 '현지 정착용'이라고 답했고, 18.2%가 '별장·주말주택용'이라고 답했다. 이 질문 응답에서도 역시, 작년의 설문 결과보다 '현지 정착용'의 비

율이 증가하였다. 사람들은 이제 아예 전원으로 이주하거나, 여건이 허락하지 않을 경우 전원주택을 '퍼스트 하우스(first house)'로, 도시의 집은 '세컨드 하우스(second house)'로 두기를 원하고 있다.³⁰⁾ 또한 주생활과 관련하여 땅을 밟을 수 있는 주말농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고, 자연을 즐기며 느긋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전원주택, 정원이 있는 단독주택은 편리한 도심의 아파트에 길들여진 도시인들에게 전망의 대상이 되고 있다.³¹⁾

해외에서 느리게 살기 운동이 주생활에 가져온 변화가 느리게 살기 위한 도시를 위해 기존의 공간에서 자동차 사용을 줄이는 등, 개선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접근을 보였다면 국내의 느리게 살기 운동은 다른 주거 장소, 주거 환경을 찾는, 즉 새로운 대안 장소를 찾는, 전원주택 선호 정도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4) 느리게 사는 사람들

① 슬로비족과 보보스: 느리게 살기 라이프 스타일을 채택하는 사람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다. 그 중 하나가 말 그대로 느리게 사는 사람들에게 붙인 말로, 바로 "슬로비(Slobbie)족"이다. 물론 조어이기는 하지만, "천천히, 그러나 더 훌륭하게 일하는 사람(Slower but better working people)"을 뜻하는 말로 여피(Yuppie)족 이후 1990년대 미국에서 등장한 젊은 세대를 일컫는다.³²⁾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바로 보보스족이다. 느리게 살기 운동은 21세기 들어 등장한 보보스의 라이프 스타일과 상통하는 면이 많이 있다. 해외에서 지극히 상업적인 이유로 구체화된 것으로 보이는 '보보스(bobos)'는 '부르주아 보헤미안(Bourgeois Bohemian)'의 약자로 새로운 정보 시대의 엘리트들이다.³³⁾ 이들이 과거의 엘리트와 다른 점은 이들이 사회 내 계급적 지위로 는 과거의 부르주아와 같지만, 감성은 보헤미안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즉, 사회적으로는 성공했지만, 이들의 라이프 스타일은 예전의 성공한 사람들의 그것을 은근히 무시하는 새로운 것이다. 보보스는 자연친화적이고 고상해 보이는 삶을 추구하고, 건강함과 정서적인 안정을 동시에 추구하는 취향을

가져 아로마 테라피(aroma therapy)나 요가, 명상 등의 정신적인 치유법과 육체를 단련시키는 헬스 센터, 레포츠의 붐을 일으켰다.

이들의 소비 생활은 이전까지의 성공한 사람들의 그것과 매우 다른데, 필수품에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이다. 일례로 부엌을 꾸미는 데 큰 지출을 한다. 건강하고 맛있는 요리를 위해 대형 오븐과 스토브, 버너 등 다양한 부엌용 기기들을 구입하고 설치하는 것을 즐긴다. 이들에게 있어 넓은 부엌에서 튼튼한 집기들을 갖춘다는 것은 스스로 요리를 함으로써 일상의 까다로운 현실을 공유한다는 의사 표시이다.³⁴⁾ 이제까지의 관점에서 볼 때 이들이 부엌을 꾸미는 데 사치를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다. '사치'란 물건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자유롭게 활용하는 것, 다른 사람으로부터 혹은 혼잡으로부터 어느 정도 거리를 둘 수 있는 것이라고 「21세기 사전」은 정의하고 있다. 이것은 실제, 경험, 공정성, 진정함, 맞춤에 접근하는 특권을 누리는 것이다.³⁵⁾ 이들은 일상에서 음식을 하는 데 시간을 들이는 것, 좀 더 맛있고 건강한 음식을 조리하기 위해 부엌 기기에 세심한 신경을 쓰는 것을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자신들의 능력과 시간 관리에 대한 또 다른 표현으로 본다. 즉, 이것은 그들에게는 사치가 아니라 그만큼의 여유가 있음을 표시하는 것이며, 당연한 것이다.

국내에서도 각종 잡지나 매스컴에서 기존의 생활방식과는 다른 삶을 부각시켜 다루는 예가 많고 있다. 오지 탐험가,³⁶⁾ 온 가족과 함께 2년 동안 세계 버스 여행을 다녀왔다는 사람,³⁷⁾ 공무원 직장에 사표를 내고 자녀들을 휴학시키고 1년 동안 온 가족이 배낭 여행을 다녀왔다는 사람,³⁸⁾ 일생을 산 속의 찻집을 운영하며 소박하게 살아 왔다는 부부³⁹⁾ 등 매스컴에서 부각시키고 있는 사람들은 '새롭고 세상 사람들과는 무언가 다른 것을 추구하는 듯한' 사람들이다.

② 자녀 교육법에 있어서의 변화: 자녀를 가지고, 낳고, 키우는데 있어서 우리 조상들이 하였던 전통적 방법을 따르고자 하는 부모들이 많아졌다. 이에 관한 각종 서적이 베스트 셀러가 되고 있으며⁴⁰⁾ 전통육아법에 관한 강좌가 젊은 주부들을 대

상으로 활발하게 열리고 있다.

자녀 교육법에 있어서 좀 더 급진적인 방법을 택하는 부모들은 공동육아나, 대안학교를 통해 자녀를 교육시키기도 한다. 이들은 '속도의 신화'의 한 변형인 '출세의 신화'를 거부하는 사람들로, 대부분 "입시 위주의 교육", "대학에 꼭 가야 한다"는 사회적 통념을 거부한다.⁴¹⁾

미국의 홈 스쿨링 가정은 1999년 당시 약 150만 명으로 추정되었으며, 맞춤 교육, 가족간 유대감, 저렴한 학비 등의 장점으로 매년 15-20% 씩 증가 추세에 있다. 국내에서도 홈스쿨링 단체 '가정학교 모임'이 1999년 발족, 홈스쿨링 가정이 점차 늘고 있다.⁴²⁾ 인터넷 사이트 www.daum.net에는 '대안교육'이라는 이름의 키워드로 검색되는 관련 동호회가 2002년 현재 13개에 이르며, 인터넷 사이트 프리챌(www.freechal.com)에서는 28개에 이른다. 또, 키워드를 '유기농'으로 넣었을 때에는 다음 사이트에서는 28개의 동호회가 검색되었고, 프리챌 사이트에서는 총 14개의 동호회가 검색되었다. 이는 인터넷을 주로 이용하는 연령층이 비교적 젊은 것을 감안할 때 상당한 관심이 아닐 수 없다.

이들이 비록 사회 내 다수를 차지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이들의 라이프 스타일, 특히나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있으면서도 무언가 색다른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고 있는 이들, 세상의 시계대로 살아가지 않고 자신만의 시계에 맞춰 느리게 살아가고 있는 이들의 취향은 또 하나의 여유로움의 표현으로 사회 내 여러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

Ⅲ. 느리게 살기 운동에 영향을 받은 패션에서의 변화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야후 국어사전에서 정의하는 '느리다'의 정의를 패션 변화 해석에 적용하기 위하여 '느리다'를 재해석하기로 한다. 위의 두 정의에서 볼 때 '느리다'는 우선 첫 번째 정의는 바쁘지 않게 천천히 사는 것, 두 번째 정의는 만드는데, 결과물을 얻는 데 시간이 더 걸리는 것을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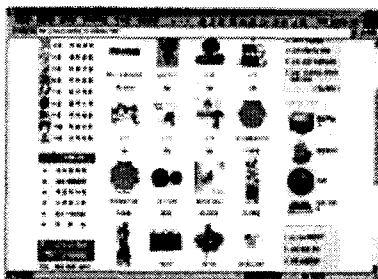
이 받아들이는 것으로 구별하여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개념의 구분은 느리게 살기 운동이 패션에 미친 영향을 전반적으로 분류, 고찰하는데 기준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느리게 살기의 영향이 패션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국내외 패션 관련 자료들을 통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천천히 사는 느리게 살기가 영향을 준 패션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스스로 만들기

천천히 사는 느리게 살기가 영향을 미친 패션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로 먼저 스스로 만들기를 들 수 있다. 느리게 살기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은 '스스로 만들기'라는 과정 자체를 즐기면서 노동의 기쁨을 추구하고 이에 흥미를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진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몇 년 전부터 인기를 얻기 시작한 십자수 하거나, 헤어핀 만들기, 테디 베어 만들기에 대한 강좌와 안내책자 등은 이런 움직임의 한 예이다⁴³⁾. (<그림 3>) 뜨개질, D.I.Y. (Do It Yourself)나, 스스로 하는 의복 리폼(reform), 자신이나 자녀의 의복, 인테리어 소품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으며 앞으로 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3> 테디 베어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는 인터넷 사이트(www.anchor.co.kr)

2. 결과물을 얻는데 시간이 더 걸리는 것을 받아들이는 느리게 살기가 영향을

준 패션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옷을 만드는 데 소요된 노동과 시간에 가치 부여

결과물을 얻는데 시간이 더 걸리는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느리게 살기가 영향을 미친 패션 라이프 스타일의 또 다른 변화로는 옷을 만드는데 소요된 노동과 시간에 큰 가치를 부여하는 점을 들 수 있다. 느리게 살기에서는 노동과 시간의 개념이 재평가되어 상품 가치 평가에 포함되기 때문에 대량생산 제품보다는 장인정신이 드러나며, 제대로의 과정을 거치고 필요한 만큼의 시간이 투자된 상품을 선호하게 된다. 생산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숙련된 수공업으로 나오는 물건이 더 호감을 얻고 더 오래 남는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수공업로의 회귀로 나타나기도 하고, 잘 만들어진 제품, 고가의 제품, 희소한 제품의 선호 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1) 수공업적 기법의 적극적 도입-핸드메이드 제품

실제로 이제까지 매우 지적이고 분석적인 디자인을 한다고 평가받았던 디자이너들이 지난 몇 시즌 동안 수공업적인 기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오픈마켓에서 주로 볼 수 있는 수공업적인 디테일이 가미된 디자인의 예를 기성복에서도 많이 볼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수공의 디테일이 가미된 스타일

들은 최근 두드러지는 히피와 보헤미안, 그리고 에스닉풍 트렌드의 재등장과 함께 현대 패션의 가장 뚜렷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손으로 짠 듯한 투박한 니트, 꽃무늬 자수 디테일⁴⁴⁾ 가죽을 꼬고, 땅고, 엮은 가죽 액세서리들⁴⁵⁾(<그림 4>)이 각광을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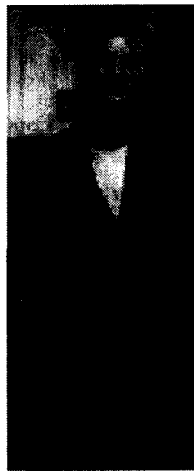


<그림 4> leather crafts, 바자코리아, 2002년 5월.

2000년 F/W 시즌 뉴욕에서 컬렉션을 가졌던 미니 말리즘의 대표주자 헬무트 랑은 단순한 형태의 탑에 프릴 장식을 붙이고 있으며(<그림 5>), 비비안 웨스트우드는 2001년 S/S 시즌 정교하게 비딩(beading) 작업을 한 상의를 선보였다(<그림 6>).



<그림 5> 헬무트 랑의 2000년 FW 컬렉션, 바자코리아, 2000년 4월



<그림 6> 비비안 웨스트우드의 2001년 SS 컬렉션, 바자코리아, 2000년 1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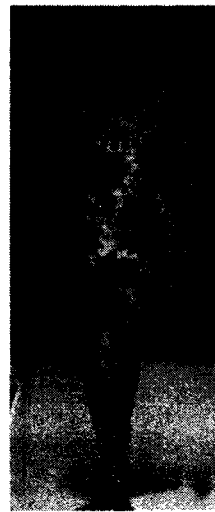
수공예적 경향은 특히 2002년 S/S 파리 컬렉션에서 많이 관찰되고 있는데, 콤므 데 가르송(Comme des Garçons)의 레이 가와구보(Rei Kawakubo)는 풀떡여 다린 레이스와 동부 유럽의 민속복식에서 영향을 받은 듯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준야 와타나베(Junya Watanabe)는 스톤 와싱(stone-washing)된 낡은 데님(denim)을 사용하여 핀턱(pin-tuck)을 주고, 데님 끝단의 헤진 느낌을 그대로 살리면서 무거운 드레이프(drape)와 주름을 보여주고 있다. 후세인 살라얀(Hussein Chalayan)도 오래되어 녹이 쓴 듯한 느낌을 가죽 소재를 가공하여 보여주면서, 의복에서의 시간의 정지, 노동과 시간이 축적된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그림 7>). 최근 파리 패션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네덜란드의 빅토 앤 롤프(Victor and Rolf) 듀오도 전통적인 수공예 느낌의 직물을 여러 겹 배치한 칼라를



<그림 7> 후세인 살라얀의 2002년 SS 컬렉션, inview, nr.19



<그림 8> 루이 비통의 2002 SS 컬렉션, 자수 코트, 보그코리아, 2001년 12월



<그림 9> 2002년 SS 시즌 빌 블래스의 자수 드레스, 바자 코리아, 2001년 11월



<그림 10> 이세이 미야개의 2002년 SS 컬렉션, inview, nr.19

보여준다.⁴⁶⁾ 존 갈리아노(John Galiano)는 기존의 장식적인 그의 컬렉션을 보여주면서 자수와 레이스의 디테일을 선보이고 있고, 루이 비통(Louis

Vuitton)의 마크 제이콥스(Marc Jacobs)는 러시아 풍의 플로럴 패턴을 흰 색 가죽 코트에 과감하게 수놓아 자수 열풍을 불러 일으켰으며(<그림 8>), 빌 블래스(Bill Blass)의 컬렉션에서도 민속풍의 느낌이 나는 자수로 드레스 전체를 장식하고 있다(<그림 9>). 이세이 미야게(Issey Miyake)의 컬렉션에서도 다양한 수공예적 기법이 선보였다(<그림 10>).

2002년 F/W 시즌에는 핸드 메이드(hand-made)의 투박한 느낌의 니트가 선보였는데, D&G 컬렉션에서 핸드 니트의 다양한 아이템이 선보였다(<그림 11>).

국내에서는 SFAA, 서울 컬렉션 등이 주로 하이 패션 디자이너들이 주도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제까지 해외에 비해 수공예적인 터치가 조금 더 일반적이었다고 할 수 있지만, 수공예적인 경향이 최근 더욱 강화되고 있다. 이들의 컬렉션에서 수공예적 기법, 오랜 시간을 거쳐 새롭게 개발한 직물의 텍스춰 등이 국내 여러 패션 잡지에 잇따라 특징으로 소개되고 있다. 예를 들면 2000년 F/W 시즌 이상봉의 컬렉션에서는 섬세하게 컷 아웃(cut-out)된 모피 코트가 선보였으며(<그림 12>), 기타 다른 디자이너들에게서도 수공예적 경향은 텍스춰의 개발이라는 과제와 맞물려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2002년 F/W 시즌 컬렉션에서는 '로맨티시즘(romanticism)'과 '믹스 앤 매치(mix & match)' 그리고 '에스닉(ethnic)'의 유행에 힘입어 '뉴 아트 크래프트(New Art Craft)' 운동으로 불릴 만큼 수작업과 수공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내 SFAA 컬렉션에서는 수공예적인 느낌의 디테일이 대거 등장하였는데, 패치워크(patch-work), 펀칭(punching), 비딩(beading), 십자수, 손뜨개 등이 시도되었다. 때로는 한달 여 동안 여러 번의 힘든 공정을 거쳐 제작되기도 하고 지속적인 손길과 인내를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디자이너들은 창의적인 수공예적 느낌의 표현을 위해 기꺼이 시간을 투자하는 것으로 보인다.⁴⁷⁾ 수공예적인 디테일에 심취해온 루비나의 컬렉션에서는 손뜨개와 같은 거친 느낌의 니트가 많이 선보였고(<그림 13>), 신장경의 컬렉션에서는 섬세한 자수 디테일(<그림 14>)이 옷과 액세서리에 대거 등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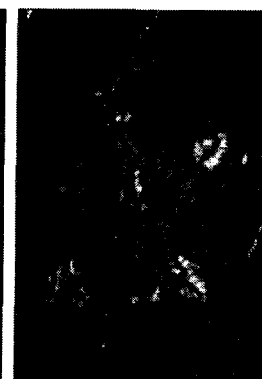
<그림 11> D&G의 2002FW 컬렉션, 핸드메이드 니트, 바자코리아, 2002년 5월



<그림 12> 이상봉 2000년FW컬렉션, 바자코리아, 2000년 6월



<그림 13> 루비나의 2002 FW 컬렉션, 보그 코리아, 2002년 8월



<그림 14> 신장경의 2002 FW 컬렉션, 보그 코리아, 2002년 8월

패션에서 볼 수 있는 느리게 살기의 영향은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옷을 만드는데 소요되는 노동과 시간의 가치를 다시 재평가하여 인식하게 되었음을 의미하며, 어떤 행동이든 단지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에서 급하게 해치워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⁴⁸⁾ 이와 같은 맥락에서 수공예적 기법과 핸드 메이드 제품이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2) 공들여 만들어진 제품의 선호- 명품, 핸드메이드 제품

느리게 살기에서 추구하는 바 가운데 하나인 오랜 시간 공들여 만드는 인간의 노동과 제품에 대한 찬사는 오랫동안 여러 공정을 거쳐 공들여 만들었거나, 수십년 동안 한 제품에만 몰두해 온 브랜드에서 오랫동안 판매되었던 명품에 대한 선호로도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국내에 이른바 '명품족'이 확산됨에 따라 명품족 가운데에서도 최고 소득층인 럭셔리 마이노리티(luxury minority)가 등장하고 있는 현상은 흥미롭다. 이들은 고급화된 소비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하려는 욕구가 매우 강하기 때문에, 대중화된 명품보다는 독특하면서 알려지지 않은 브랜드를 더욱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⁴⁹⁾ 즉, 인간의 노동과 투자된 시간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희소 가치가 있는 명품을 선호하기에 이른 것이다. 따라서 고가의 제품, 한정 생산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명품 브랜드에서는 기업의 이념이나 제품 생산 공정에 대한 설명을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방법을 모색하여 자사의 홍보 수단으로 삼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루이 비통의 기업 이념을 보면 고결함을 상징하는 전통 장인정신을 보존하면서 창조적 인력을 육성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루이 비통의 홈페이지인 www.vuitton.com에서는 가죽, 의류, 구두 제품의 제작과정을 동영상으로 공개하고 있다. 장인이 직접 가죽 재료를 선별하고 디자인, 재단, 마감하는 가죽 가방과 구두 제작의 전 단계를 클래식 음악을 배경으로 비디오로 촬영하여 경건한 분위기까지 느껴질 정도이다. 기성복도 디자이너의 스케치, 성형 과정, 패턴 제작에서 마지막 생산에 이르기까지 세부단계를 설명하여 품질을 증명하고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다.⁵⁰⁾

느리게 살기 운동의 영향으로 패션에 나타나는 공들여 만들어진 제품의 선호, 핸드 메이드 제품의 가치 부각 등은 역시 보보스라는 소비자 집단의 등장에 힘입은 바 크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인간의 노동과 시간에 대하여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소비자가 얻게 되는 것은 바로 희소성일 것이다.(표 1 참고)

3. 패션에 나타난 느리게 살기에 대한 논의 (표 2,3 참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에 널리 퍼지고 있는 느리게 살기를 중심으로 패션에 나타난 변화를 분석해 볼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느리게 살기는 20세기 전반의 생활 양식에 대한 반성과 대안으로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사회 문화적인 배경이 매우 방대하다고 할 수 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자연의 파괴, 국제 무역의 성행으로 인한 전 세계적 문제 공유(예-광우병) 등이 가장 두드러진 사회문화적 배경이 된다고 할 수 있고, 이 외에도 느리게 살기 운동의 결과이기도 한 느리게 사는 사람들은 느리게 살기 운동을 있을 수 있게 한 원인이 되기도 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먼저 크게 2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세상의 다른 것을 버리고 느리게 살기를 택한 사람들과 모든 것을 취하고도 느리게 살 수 있게 된 사람들이 그들이다. 특히 후자는 20세기 말 새로운 직업군, IT 등의 신종 산업 발전에서 파생된, 종래와 같이 9시에서 6시까지 일하지 않아도 되는 직업군의 등장, 보다 극단적으로 젊은 나이에 은퇴하여도 될 만큼의 부를 축적한 사람들까지를 모두 아우르는 집단이다. 이들이야말로 현대적 소비 활동에 참여하면서도 종래의 시간 개념과는 무관하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확산되면서 일반인들은 주중과 주말을 나누어 살면서 이들의 느리게 살기를 모방하였다고도 할 수 있다.

종래 빠르게 살기에서 취하는 대부분의 것들이 느리게 살기에서는 거부되고 대신 느리게 사는 사람들이 택한 대안은 자연 친화 성향으로, 생활 전반, 의식주에 영향을 주고 있다. 속도전의 빠르게 살기에서는 대량생산과 획일적 디자인이 보다 호소력있는 것이었다면 느리게 살기에서는 소량생산, 수공예적인 디테일, 자연 소재, 스스로 만들기, 공들여 만든 제품, 명품 등에 대한 선호로 나타난다. 또 흥미로운 점은 이들이 기존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대안을 동양적인 것에서 찾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각광을 받은 바 있는 쯤(Zen) 스타일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나오게 된 것이라고 해석할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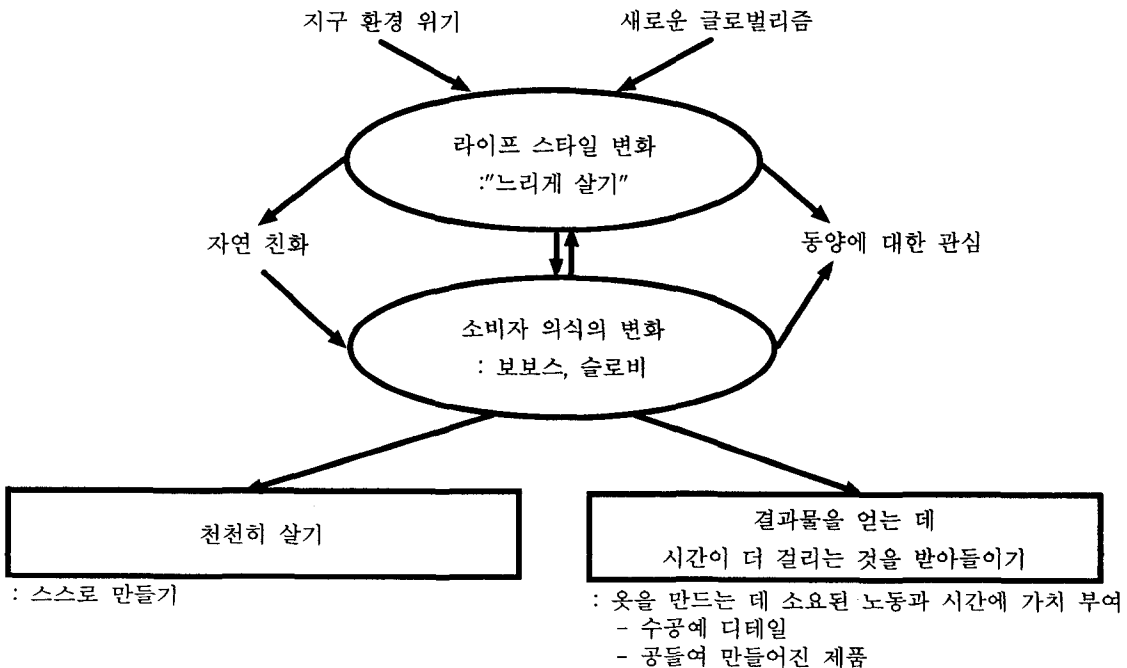
<표 1> 느리게 살기의 영향을 받은 패션 디자인 분석

시간에서의 '느리게'의 개념	패션에서의 '느리게'의 개념	디자인 예
천천히 살기	스스로 만들기	손뜨개질 십자수 D.I.Y.(Do It Yourself) 리폼(reform) 소품 스스로 만들기
결과물을 얻는 데 시간이 더 걸리는 것을 받아들이기	옷을 만드는 데 소요된 노동과 시간에 가치 부여	수공예 디테일 자수 십자수 핸드 메이드 니트 가죽 꼬기 레이스 핀턱 드레이프 주름
		공들여 만들어진 제품 명품 핸드 메이드 제품

<표 2> 느리게 살기와 빠르게 살기의 비교

	빠르게 살기(fast)	느리게 살기(slow)
식	패스트 푸드, 인공조미료, 유전자 조작 식품	유기농 야채, 국내산 선호, 수입농수산물 기피, 전통식 조리법
주	아파트, 콘크리트	단독주택, 전원주택, 주말농장
의	대량생산, 획일성	스스로 만들기, 핸드 메이드, 소량생산, 자연소재, 수공예적인 디테일, 공들여 만든 제품, 명품

<표 3> 느리게 살기 운동이 패션에 미친 영향



있다. 자연친화와 동양에 대한 관심은 느리게 살기 운동에서 파생된 또 다른 키워드로 느리게 사는 사람들의 생활전반에 걸쳐 영향을 주고 있다. 느리게 살기가 패션에 영향을 주는 것은 천천히 살기와 결과물을 얻는데 시간이 더 걸리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으며 스스로 만들기, 수공예 디테일, 공들여 만들어진 제품 선호 등으로 나타난다.

서양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대안을 꾸준히 모색하는 것을 느리게 살기라고 한다면, 이 느리게 살기는 보다 장기적으로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IV. 결 론

이 글에서 이제까지 살펴 본 바와 같이 느리게 살기 운동은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가 직접 패션에서의 변화로 가시화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느리게 살기 운동이 일상 생활 전반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가를 각종 문헌과 신문 등의 매스컴 보도 자료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2000년 이후 국내외의 패션 잡지, 패션 관련 인터넷 사이트 등의 자료에서 관찰되는 최근 패션의 새로운 경향을 느리게 살기 운동이 구체화된 사례라는 맥락 속에서 해석하였다. 이제까지의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느리게 살기 운동은 20세기를 통해 이룩한 빠른 인류의 삶의 방식과 배치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서 장기적으로 인류의 생활 방식에 커다란 영향을 줄 가능성이 많다.

둘째, 일상 생활에 나타난 느리게 살기 운동의 영향은 식생활에서는 유기농 야채의 선호, 수입 농산물의 기피, 전통식 조리법의 선호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주생활에서는 전원 주택의 선호, 자연 소재의 채택, 녹지 공간의 확보에 대한 배려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느리게 살기는 이 뿐만 아니라 자녀 교육이나 사람들의 인생 설계에도 영향을 주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느리게 살기

는 21세기 들어 주목받는 소비자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보보스의 라이프 스타일과 매우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패션에 구체적으로 나타난 느리게 살기 운동의 영향은 스스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시도를 들 수 있으며, 인간의 노동과 시간을 투자한 공들인 옷에 대한 선호에서도 볼 수 있다. 소재의 면에서는 천연 소재의 선호로 나타나고, 디자인 상에서는 수공예적인 디테일의 가미를 들 수 있다. 특히나 명품의 선호와 특히 상대적으로 희소한 명품에 대한 열광이 느리게 살기 운동의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는 패션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것처럼 '느리게 살기'에서 느림이란 후퇴나 게으름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삶을 음미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는 것과 관계되는 것이다. 따라서 느리게 살기는 안티-테크놀로지(anti-technology)라기 보다는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으로 테크놀로지를 신중하게 사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느림'은 인간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노동과 소요 시간에 대하여 의미를 부여하고 인간을 상품의 생산과 소비의 중심에 세움으로써 객체가 아니라 주체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느리게 살기는 제대로 살기이며, 노동과 시간을 재평가하여 우리의 삶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참고문헌

- 1) '느리게 살기'는 삶의 속도전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택하는 라이프 스타일 가운데 하나를 일컫는 것으로 근래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용어이다. 본 연구에서는 어휘의 반대어로 '빠르게 살기'를 택하고자 하며, 어휘의 의미에 대해서는 본고의 내용에서 보다 더 심도 있게 다루고자 한다.
- 2) 이은영, 패션마케팅(제2판), 교문사, 1996, p.268.
- 3) <http://kr.kordic.yahoo.com>
- 4) <http://clid.yonsei.ac.kr:8000/dic>
- 5) 자크 아탈리, 편혜원, 정혜원(역), 21세기 사전, 중앙 M&B, 1998, p.80.
- 6) 레온 크라이츠먼, 한상진(역), 24시간 사회, 민음사,

- 1999, p.140.
- 7) 앞글, p.42.
 - 8) 피에르 쌍소 지음, 김주경 옮김, 느리게 산다는 것의 의미, 동문선, 2000, p.13.
 - 9) 금기숙 외 9인(공저), 현대 패션 100년, 서울: 교문사, 2002, p.293.
 - 10) "아듀 20세기- 90년대 개관", 디지털 조선일보, 2000년 10월 3일자.
 - 11) 금기숙 외 9인, 앞글, p.293.
 - 12) 문숙재, 여윤경, 소비자 트렌드 21세기, 시그마프레스, 2001, p.6.
 - 13) 금기숙 외 9인, 앞글, p.293.
 - 14) viewpoint, no.11, pp.120-121.
 - 15) "<슬로 푸드>를 아시나요", 디지털 조선일보, 2001년 3월 13일자.
 - 16) TIME, 2002년 4월 8일자.
 - 17) www.bulthaup.com
 - 18) 바자 코리아, 2002년 5월, pp.356-349.
 - 19) The Style, 2002년 1월, 중앙 M&B.
 - 20) "요리의 새 지평, 살아 있는 음식", 뉴스위크 한국판, 2002년 7월 31일자, p.88
 - 21) viewpoint, no.11, pp.118-119.
 - 22) <http://nature.toenter.net/webzine>
 - 23) Elane Feldman, Fashions of a Decade-1990s, New York: Facts on File, 1992, pp.48-49.
 - 24) 디지털 조선일보, 2001년 3월 13일자, 같은 글.
 - 25) www.slowfoodkorea.com
 - 26) 개미시장, 유기농법 생식, 녹야원닷컴[무공해식품주의] 등이 있다.
 - 27) 2002년 이후 출간된 책으로 음식혁명(시공사), 잘먹고 잘사는 법(김영사), 고기보다 맛있는 채식 요리(시공사), 헬렌 니어링의 소박한 밥상(디자인하우스) 먹어서는 안 되는 유전자조작 식품(교보문고) 등이 있다.
 - 28) 통계청 홈페이지, www.nso.go.kr
 - 29) "열심히 일하고 여유는 한껏 즐기자", 중앙일보, 2002. 4. 12.
 - 30) 주간조선, 2002. 4. 25.
 - 31) 2002년 이후 출간된 관련 도서로 한국 토양에 맞는 전원주택 설계집(주택문화사), 전원주택 1 - 내집만들기(주택문화사) 등이 있다.
 - 32) "슬로비", 스포츠 투데이, 2000년 11월 8일자.
 - 33) 데이비드 브록스, 형선호(역), 보보스, 동방미디어, 2001, p.13.
 - 34) 앞글, p.97.
 - 35) 자크 아탈리, 위글, p.158.
 - 36) 한비야, 바람의 딸 걸어서 지구 세바퀴 반, 금토, 1996., 한비야, 중국견문록, 푸른숲, 2001.
 - 37) "미애와 루이의 버스 여행, 보그 코리아, 2002년 8월호 별책 부록.
 - 38) "세계일주 가족배낭여행 마친 이성씨-자신감 얻었어요", 인터넷 동아일보, 2001년 7월 11일자.
 - 39) 김미순, 너무 가난해서 너무 행복한 삶, 문학사상사, 2000.
 - 40) 황금빛 동을 누는 아기 - 자연건강법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다섯수레), 차라리 아이를 굶겨라 - 아이를 해치는 음식 39가지(시공사) 등이 있다.
 - 41) "느리게 사는 사람들", news+, 1998. 9. 24.
 - 42) 신한종합연구소, 2000년 한국사회 이렇게 변한다. 신한종합연구소, 1999, pp.178-179.
 - 43) 2002년 이후 출간된 안내책자로 행복 십자수 인테리어(서울문화사), 메종 꾸뛰르 옷 만들기 - 여자자수 나시원피스 & 모자(아이오씨앤에), 메종 꾸뛰르 옷 만들기 - 자수나시원피스 & 모자(아이오씨앤에) 등이 있다.
 - 44) "Homemade Hip", 바자 코리아, 2002. 5. p.108.
 - 45) "Leathern "Crafts", "보그 코리아, 2002. 5, p.112.
 - 46) inview, nr.19. p76
 - 47) 보그 코리아, 2002. 8, p.121.
 - 48) 피에르 쌍소, 김주경(역), 앞글, p.112.
 - 49) 최순화, "시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5대 소비 트렌드와 기업의 대응-", 삼성경제연구소 보고서, 2002. 6. 12., p.9.
 - 50) 심상민, "뷰티 산업의 부상과 성공전략", 삼성경제연구소 보고서, 2002. 4. 24, p.20.